

‘내 맘대로 승적 이동’ 막아라

일부 종단스님 이중 승적·부자격자 유입 등 문제 많아

범종단 차원서 관리 시스템 갖춰야

최근 창종한 A종단은 얼마 전 일종의 한 스님 때문에 종단분규 상황까지 치달게 됐다. 다른 종단에서 비리로 제명된 스님을 허위로 작성된 승적부만 믿고 입증을 허락했다가 분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야 그 스님이 비리로 인한 전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스님들의 이력서라 할 수 있는 승적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가 적지 않다. 소신에 따라 종단을 옮기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각종 문제를 일으킨 스님이 종단만 옮겨 여전히 승적 신분을 유지하거나, 심지어는 승적을 허위로 조작하는 사례까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례는 규모가 작은 종단일수록 심각하다. 인원이 늘거리에 급급하다보니 아무런 검증없이 입증 희망자를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 검증을 한다고 해도 일차적으로 승적부에 의존하는 상황이지만, 대부분의 종단이 승적부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검증 실

효성은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B종단 신도인 김모 보살은 최근 C종단의 한 사찰에서 열린 법회에 참석했다가 황당했다. 한 주 전 B종단 소속이었던 어떤 스님이 C종단 소속으로 소개됐기 때문이다. 법회를 마치고 돌아와 B종단에 문의했지만 B종단 관계자는 그 스님이 종단을 옮겼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

심지어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이하 종단협) 소속 종단조차도 승적부에 허점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다.

종단 관계자들은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다"고 말한다. 오히려 "많은 스님들이 옮겨 다니는데 승적부 관

리는 해서 무엇하겠느냐"며 "그럴 필요성도, 승적을 관리할 인력과 시스템도 없다"고 말한다.

이같은 승적관리 부재는 결국 종단 난립으로 이어지면서 불교 이미지를 흐리는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승적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 마련과 함께 종단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승적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조계종은 최근 '승적업무 처리에 관한 령'을 입법예고하는 등 법제도에 강화를 통해 승적관리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그동안 수작업으로 승적을 관리해왔던 태고종도 올 12월부터 자체 개발한 전산프로그램을 승적관리 업무에 이용해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재)일부종교이행이 최근 승적관리 목적으로 ID카드로 승적증을 발급해 종단 스님의 높은 관심을 끈 것 등은 한번 참고해 볼만 사례다. 승적 분란신고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종단 스님들의 활동현황을 파악할 필요성도 크다.

하지만 대부분의 군소종단들은 인력부족과 재원부족으로 승적관리가 쉽지 않다고 말한다. 10~20년 전에 만들어진 승적부를 전산화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종단협 김석오 총무차장은 "종단들이 서로 뜻을 모아 승적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하는 일은 크게 부담스럽지 않을 것이다"며 "무엇보다도 승적부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종단의 한 관계자는 "불교계가 자체 정화를 위해 승적 등 기본 자료를 함께 관리할 틀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공멸할 수도 있다. 종단 간 네트워크를 구성해 여과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유신 기자



태고보우승가회, 여름 가족수련회

태고종 수행결사단체인 태고보우승가회(회장 호명스님)는 7월 29~31일 태고총림 선암사에서 '제2회 산사체험 불자가족 여름수련회'를 개최했다. '푸른 숲 맑은 마음 부처님마음'을 주제로 열린 이번 수련회에는 어린이·청소년·성인그룹 등 세대 중심으로 진행돼 왔던 기존의 수련회 형식을 탈피하고 세대가 함께 수행하는 가족중심의 수련회로 진행됐다.



총지중 청소년 여름수련회

총지중(총무원장 우승) 제15회 청소년 여름 학생수련회와 제10회 어린이 여름수련회가 7월 25~29일 2박3일씩 보령 청소년수련원에서 열렸다. '산과 바다와 함께 하는 마음 수련의 장' 주제로 열린 이번 수련회에는 300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석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번 행사에서는 갯벌조개잡기, 생활요가, 성주사지 답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천태종 하안거 입제

천태종(총무원장 운덕)은 8월 11일 단양 구인사에서 유유년 하안거 입제식을 봉행하고 1개월간의 하안거 수행에 돌입했다. 9월 10일까지 계속되는 천태종 하안거 수행에는 2만여 명이 종도들이 동참하고 있다.

천태종은 중창조 상월원각 대조사의 생활불교에 따라 재가신도를 위한 하안거와 등안거를 매년 마련하고 있다.

임제선학원 유식학 강좌

서울 임제선학원은 불교 유식학 강좌를 들을 학원을 모집하고 있다. 임제선학원은 8월 25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오정근 前 동국대 불교대학원장을 초청해 유식학 강좌를 연다.

불교의 유심사상이며 심리학인 유식학은 선(禪)의 이론적 요체를 담은 학문. 일반인도 수강이 가능하다. (02)496-3952

총지중 1박2일 경로법회

총지중(총무원장 우승)은 8월

북한상품 남한판매 돕는다

천태종, 조불련 요청 수락

천태종과 조선불교도연맹(이하 조불련)이 북한 관광상품 개발 및 남한 판매에 나선다.

천태종 사회부장 무원 스님 일행은 8월 8~10일 금강산에서 정서정서기장과 차금철 스님 등 조불련교도연맹(이하 조불련) 대표들과 만나, 북한 관광상품 개발 및 남한 판매에 협조하기로 잠정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조선불련무역회사가 8월말부터 생산하는 관광상품의 남한 판매를 도모한다는 조불련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무원 스님은 "북한 관광상품을 한국으로 반입하기 위한 절차가 완료되면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천태종이 북한관광사를 하는 개성 영동사 낙성식은 9월말에 열기로 잠정 결정됐다. 자세한 행사 계획은 2, 3차례 다시 만나 의논할 예정이다.

천태종은 북한지역 성지순례를 조불련 주도하에 치를 수 있도록 하고자 제안했고 16일 조계사에서 열린 광복절기념법회에서 추가논의가 진행됐다.

강유신 기자

태고종, 불교교양대학 정비

'준 종립대학' 인가 등 각종 혜택 주기로

태고종(총무원장 운산)이 종단 내 불교교양대학 정비에 나선다.

태고종은 종단사찰 혹은 스님들이 설립 운영하는 사립 불교교양대학 현황파악을 위한 신고사업을 벌인다고 8월 10일 밝혔다. 이번 신고사업은 불교대학 운영현황 파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체계적인 행정 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태고종은 교양대학 현황, 학사일정, 학교 정관, 학생 현황, 학생증과

수료증 양식 등을 자료화해 이에 입각한 행정편의와 각종 홍보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고가 완료되면 '준 종립대학'으로 인가하는 등 불교교양대학 지원 육성 계획도 세우고 있다. 태고종은 불교교양대학들을 묶어 연합회를 결성하고 졸업자에게 2급 포교사로서 응시하는 자격을 부여하는 한편, 동방불교대학 2년 편입시험 응시자격 등도 부여할 예정이다.

강유신 기자



제5회째를 맞는 진각종 회당문화축제. 올해에는 8월9~13일 울릉도·도동항 등지에서 영화상영, 해변가요제, 의료봉사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됐다.

진각종 회당문화축제 성황

가요제·민속공연 등 1만4000명 참가

진각종 회당문화축제가 8월 9~13일 울릉도 일대에서 열렸다. '독도아리랑'을 주제로 개최된 제5회 회당문화제는 영화상영, 가요제, 민속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다. 진각종 스승과 독도수비대, 울릉군 주민, 관광객 등 1만 4천여 명이 한 여름 밤의 즐거운 축제를 만끽했다.

11~12일에는 영화상영, 해변가요제, 도동항 풍등 날리기 행사가 진행됐으며, 13일에는 울릉도와 독도를 수비하는 군부대원 대상 위문공연

과 풍등제자, 소망등 달기, 연날리기 행사 등이 열렸다. 진각종재단은 문화복지단체, 고려대 안암병원과 공동으로 11, 12일 울릉군 여객선인 당에서 주민 대상 무료진료 봉사를 실시했다. 강유신 기자

선암사 목조관음상 1년만에 제자리로

진위논란을 빚었던 태고총림 선암사 원통전 목조관음보살상(전남 유

형문화재 169호)이 본래의 자리인 선암사 원통전에 봉안됐다.

선암사주지 금원은 7월 29일 목조관음보살상 이전 봉안법회를 갖고 1년간 성보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됐던 보살상을 원래의 자리인 원통전에 봉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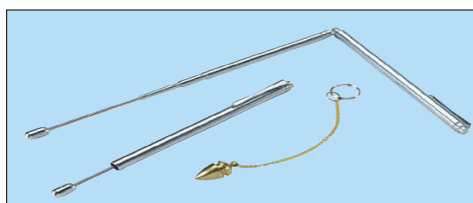
종정 혜초 스님을 증명법사로 열린 이날 법회에는 총무원장 운산, 철전선원장 지허 스님을 비롯 선암사 대종 스님들이 참석했다.

목조관음보살상 진위논란은 2004년 8월 선암사 스님 중 일부가 보살상을 가져가고 주장하면서 시작됐으나, 태고종이 문화재 전문위원회에 감정을 의뢰해 진본임을 확인받았다.

수맥 탐지기 엘로드 배우기 열풍

출장수맥 및 수맥파 감정 개업 또는 주말부업 노후 대책으로 인기

누구나 집에서 쉽게 배울 수 있어 인기



수맥파가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연구발표가 속속 밝혀지면서 수맥탐지기 엘로드를 배우려는 직장인과 부동산 중개사들까지 열풍이 일고 있다. 우리가 땅속에는 수맥이 흐르지 않나 하는 의구심에 수맥감정을 문의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 선진국에는 수맥감정사무소가 많이 있으며 일본같은 경우 수맥 감정법정까지 있다. 우리나라에는 수맥감정을 하고 싶어도 의뢰할 때가 없다. 환경오염으로 깨끗한 식수를



찾으며 해도 땅속에 있는 물줄기를 정확히 찾는 전문가가 몇명안돼 이곳저곳을 뚫기 일수다. 수맥탐지기 기술만 배우면 수맥감정 사무실을 오픈해 홍보만 조금해도 재 투자가 전혀 없는 평생 안정된 부업 또는 사업이 될것이다. 땅의 입자파장에서 세상물체가 인지 반사반을 일으키는 파장이므로 오랜경험에 의해 감지하는것 도 사실이다. 그러나 수맥과 수맥파를 탐지하는

엘로드의 발달로 수맥과 수맥파는 일반인들도 집이나 들에서 예민한 냄새나 엘로드로 연습하면 찾아 낼 수 있다. 그림1 같이 엘로드를 가지고 집안곳곳을 탐사하다보면 그림2와 같이 엘로드가 모이게 된다. 이곳이 수맥이 흐르는 곳으로 그곳에 멜토 차단캡을 놓고 다시 해보면 그림2 모양이 아닌 그림1 같이 된다 그곳이 수맥이 흐르는 곳이다. 정신집중이 잘되지 않는 사람은 수행하는 마음으로 연습하면 된다. 전국 대기능력대회 최우수상을 수상한 KSO 엘로드와 탐사주 및 수맥탐지연습용 멜토차단캡과 수맥탐지기법책 세트 가격65,000원 문의(02)741-4477 입금은행(053-12-102911

수맥파 차단카드 나왔다

자고나면 머리 맑고 컨디션 좋아



왜! 수맥파를 차단해야 하나?

일본의 산업과학연구소는 수맥파가 흐르는 곳을 민병의 근원이 된다는 뜻에서 "병인성지대"라는 표현을 쓴다. 수맥파는 투과력과 침투력이 강해 모든 물질을 관통하고 풍파로 발산되어 생체리듬을 교란시켜 수맥파가 흐르는 곳에서 장기간 살게되면 체질에 따라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한국수맥파연구회에서 제작한 멜토수맥파 차단카드를 거실 구석에 고정시켜 놓으면 종파로 올라오는 수맥파를 중화시키며 차단한다. 가격75,000원 문의(02)741-4477

평생 부자지갑 관세음보살 福지갑 출시

원하는 재물과 땅과 땅속에 있는 보물까지도 얻으리라!

관세음보살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생들의 고민과 고통을 해결해주고 소원을 성취시켜주는 부처님이다. 세상은 동안 제일 큰 고통이 재물로 인한 고통으로 이것을 해결해주는 영험의 비방이 관세음보살 여의주 수진언이다. 재물이 없어 고통을 받고 있는 중생이 관세음보살 여의주 수진언을 몸에 지니고 성심으로 기도하면 곧 보배 재물과 땅과 땅속에 있는 보물까지도 얻으며 가지고 있는 재물이 헛대이 나가지 않는 영험을 담고 있는 법구다. 법구 제작전문 불광사에서 기도와 축원불공속에 만든 관세음여의주 수진언 복지갑은 지갑 앞면에 재물로 인한 고통을 해결하고 재물을 얻어 오게하는 영험의 여의주수진언을 부착하고 내부에는 만사를 방해하는 악귀와 잡귀를 물리치는 삼고금강저를 손금도금해 넣어 소원을 이루게 했다.

고급천연옌노 가죽으로 일반지갑과는 비교될 수 없게 섬세하게 꾸며져 평생 사용할 수 있으며 출시 6개월도 안돼 관세음보살의 영험으로 아주 어렵던 사업과 장사가 잘되고, 못발을 돈이 들어오고, 부도 직전에 귀인을 만나고, 제조업은 만들면 팔리고, 부동산과 증권으로 큰 돈을 버는등, 수한 화제를 날려 지갑이다. 여성용보라색은 성공과 번영을 뜻하며 여성이 항상 지니고 다니면 가정이 번영하고 사업장은 재물이 끊이지 않는다는 뜻을 담고 있다. 전화로 신청하면 축원불공을 드리고 보내준다. 남성용55,000원 여성용95,000원 전화(02)741-4488

남성용보라색 지갑 (전도라색) / 여성용보라색 지갑 (검정색)

고급케이스에 있어 선물로도 품격이 있습니다.

은행(053-12-102911

관세음수진언 옥환의 소망

자녀가 없어 고민하는 가정의 소원성취

평생 변함없는 사랑과 애정 지혜의 자녀를 얻는 영험

관음보살에게 나오는 관세음보살 42가지 수진언은 세상중생들의 고민과 고통을 해결해주고 소원을 성취 시켜주는 영험의 손이며 법구다. 세상중생들중에 가장 큰 고민은 자녀가 없는 고민으로 관세음보살에게서 인연이 되어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면 인연의 씨앗인 후손이 꼭 있어야 하는데 전생의 업보로 자녀를 갖지 못하는 가정의 소원을 성취시켜 주기 위한 것이 관세음 42수영합중 17번인 관세음수진언 옥환이다. "만약 어떤 여인이 아들을 얻고자(嚴欲求男) 관세음보살께 공양하면 복덕과 지혜를 겸비한 아들을 낳게 되며(便生德智慧之男) 가령 딸을 얻고자 하면 (嚴欲求女) 단정하고 훌륭한 상모를 갖춘 딸을(便生端正有相之女) 낳을 것이다.(관세음보살문품에서)

관세음수진언 옥환은 지혜의 자녀뿐 아니라 이혼하지 않고 평생 변함없는 사랑과 애정을 쏟게 하는 영험을 담고 있다. 불경에 입각하여 법구 제작전문 불광사에서 기도와 불교의식을 마치고 출시한 관세음보살 옥환을 부부가 베게속에 각각 넣고 평생 사용할 수 있게 99% 순 옌으로 만들어졌으며 자녀가 없어 고민하는 부부, 후손을 기다리는 가정과, 결혼을 준비중인 예비신부 및 신혼부부에게 꼭 필요한 영험의 법구다. 전화로 부부 또는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의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축원불공과 평생 변함없는 사랑과 애정에 대한 100일 불공을 드린다. 문의(02)741-4487